



# 스웨덴 기업의 사회적 책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스웨덴

송지원 (스웨덴 스톡홀름 경제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 ■ 머리말

스웨덴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스웨덴은 CSR 활동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지표에서도 항상 상위그룹에 속해 있었다. 스웨덴은 17개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지표(ESG)를 기준으로 59개 국가의 CSR 활동을 평가하는 로베코샘(RobecoSAM) 국가지속가능성 순위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위를 유지했다(RobecoSAM, 2016).<sup>1)</sup> 이처럼 스웨덴은 이미 CSR 분야의 선진국으로 자리잡았고, 스웨덴 내 기업들의 관심과 성과도 상당하지만 스웨덴 정부는 개선하고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더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weden, 2019).<sup>2)</sup>

정부의 입장에 따라 스톡홀름 경제대학(Stockholm School of Economics)에서는 스웨덴 기업들의 CSR 활동을 더욱 촉진 및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스웨덴 대기업의 CSR 활동의 적극성을 측정하는 보고서인, CSR 활동계획 이행보고서(Walking the talk)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를 담당하는 기관은 스톡홀름 경제대학의 지속가능 분야 연구소인 MISUM(Mistra Center for Sustainable Markets)으로 연구진들은 스웨덴의 대기업(Nasdaq OMX Stockholm

1) RobecoSAM(2016), "Country Sustainability Ranking Update - May 2016," Retrieved Oct 25, 2019, from [http://www.robecosam.com/images/Country\\_Ranking\\_Update\\_May\\_2016.pdf](http://www.robecosam.com/images/Country_Ranking_Update_May_2016.pdf)

2) Sweden.se(201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SWEDEN," Retrieved Nov 1, 2019, from <https://sweden.se/business/csr-in-sweden/>

에 상장된 기업, 시가총액 10억 유로 이상)의 연간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CSR 활동의 적극성을 측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MISUM이 2019년 발간한 CSR 활동계획 이행보고서(Walking the talk: a report on the sustainability communication of the Nasdaq Omx Stockholm large cap index companies 2019)<sup>3)</sup>를 통해 연구진들이 어떤 방식으로 스웨덴 내 대기업의 CSR 적극성을 측정했는지 살펴보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해 다룬다.

## ■ CSR 활동계획 이행보고서(Walking the talk)

스톡홀름 경제대학의 MISUM의 CSR 활동계획 이행보고서(이하 보고서)는 스웨덴 대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CSR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발간된 2019 보고서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대기업들이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연간 보고서, 지속가능 보고서 2018/2019 등)를 바탕으로 분석 및 작성되었다. 연구진은 대기업들의 CSR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지표를 만들었는데, 첫째는 CSR 활동계획(talk) 영역으로 대기업들이 발간하는 연간보고서 및 지속가능 보고서에 CSR 활동 관련한 계획 및 실천목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살펴보는 지표이다. 둘째는 CSR 활동이행(walk) 영역으로 기업들이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성취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2017년 이후 연간회계법(Annual accounts act)에 따라 스웨덴 내 대기업은 지속가능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s)를 연간 또는 개별 구성의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 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스웨덴 대기업의 CSR 활동을 측정하기에 조금 더 용이해졌다. 하지만 입법 이전에도 보고서의 연구 대상인 대기업들은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었다. 이는 다수의 기업들이 이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속가능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었고 기업들 역시 CSR 활동을 공개하고 발표하는 것이 기업의 정당성 확보와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MISUM, 2019).

3) Stockholm School of Economics(2019), "Walking the talk?: A report on the sustainability communication of the NASDAQ OMX Stockholm Large Cap Index Companies 2019."

이 보고서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업 집단은 스웨덴의 대기업이다. 연구진이 대기업을 선택한 이유는 대기업의 CSR 활동과 CSR 활동을 공개하는 방식이 스웨덴 전 산업계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며 스웨덴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해를 돕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2019년 보고서의 대상인 95개 대기업은 기초자재, 소비재, 고객서비스, 금융, 보건의료, 공업, 석유 및 가스, 기술, 전자통신 총 9개 다양한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었고, 이 중 금융 분야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29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 했다(표 1 참조).

<표 1> 연구 대상 기업의 산업 구성

산업 분류	수
기초자재(basic materials)	7
소비재(consumer goods)	12
고객서비스(consumer services)	8
금융(financials)	29
보건의료(health care)	7
공업(industrials)	25
석유 및 가스(oil and gas)	1
기술 (technology)	3
전자통신(telecommunications)	3

자료 : MISUM(2019).

보고서는 CSR 활동계획과 CSR 활동이행 분야 내 총 32가지의 지표(계획: 17, 이행: 15)를 이용해 스웨덴 내 대기업의 CSR 활동(경제, 환경, 사회적 책임성 관련)을 측정하였다(표 2 참조). 32개의 지표 내에는 각각 할당된 점수(25개의 지표는 0~1점, 6개 지표는 0~2점, 1개 지표는 0~3점으로 계산되었음)가 있고 이 점수를 합산하면 획득할 수 있는 점수가 총 40점(계획: 20점, 이행: 20점)이 된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5년, 2017년 보고서에서 다루었던 지표에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해 CSR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2030(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30)에 근거한 것으로 직장 내 차별 방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고위경영진 내 양성평등 등이었다.

<표 2> CSR 활동계획(talk)와 CSR 활동이행(walk) 부문 세부지표

CSR 활동계획	세부지표	CSR 활동이행	세부지표
CSR 활동에 대한 언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웹사이트</li> <li>• CEO 성명서</li> <li>• 기업의 목표, 비전, 가치 보고서</li> </ul>	공개 및 보고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적인 보고</li> <li>• 외부 감사 및 보증</li> <li>• GRI 기준에 맞춘 보고</li> </ul>
전략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전략에서의 CSR</li> <li>• 위기관리의 CSR</li> <li>• 명확한 CSR 목표</li> <li>•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반영</li> </ul>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한 CSR 목표에 근거한 후속조치</li> <li>• 행동강령에 따른 후속조치</li> <li>• 직원의 건강 및 안전정책에 따른 후속조치</li> <li>• 반부패정책 후속조치</li> <li>• 환경정책 후속조치</li> <li>• 차별방지정책 후속조치</li> <li>• 지속가능 개발 목표 후속조치</li> </ul>
원칙 및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강령</li> <li>• 공급, 생산자 행동강령</li> <li>• 인권정책</li> <li>• 직원의 건강 및 안전정책</li> <li>• 반부패정책</li> <li>• 환경정책</li> <li>• 차별방지정책</li> </ul>	고위직의 중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강령 내 CEO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는지</li> <li>• 고위경영진 내 CSR 담당이 있는지</li> <li>• 이사진 내 양성평등</li> <li>• 고위경영진 내 양성평등</li> </ul>

자료 : MISUM(2019).

## ■ 보고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95개 기업 중 84개 기업(88.4%)이 CSR 활동이행 부문보다 CSR 활동계획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업들이 실제 CSR 활동을 수행하는 것보다 CSR 활동에 대한 계획이나 지향점을 언급하는 데 더 나은 성과를 보였음을 나타낸다. 한편 7개 기업(7.4%)만이 계획 부문보다 이행 부문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기업들의 계획과 이행 지표 평균 점수는 모두 높아졌다. 2019년 조사 대상 기업들의 평균 점수는 CSR 활동계획 12.4점, CSR 활동이행 9.3점이었고, 이는 2017년의 평균점수(계획 12점, 이행 9점)보다 약간 높은 수치였다.<sup>4)</sup> 이를 통해 대기업들의 CSR 활동 적극성이 2017년에 비해 조금 향상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점

4) 2019년 보고서에는 2017년 보고서에 없던 지표가 새로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 점수는 조정된 점수이다. 실제 평균점수(2019년)는 CSR 활동계획은 14.7, CSR 활동이행은 11.0로 나타났다.

수가 높아진 분야는 외부 평가(external assurance), 기업 전략 내 CSR 비중, 반부패정책 도입 등이었으며 나머지 분야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 내 양성평등은 2017년 조사에 비해 약간의 상승폭을 보였으나 이사진 내 양성평등(남녀 동수 유지)을 달성한 기업은 조사 대상 중 38%에 그쳤으며, 고위경영진(executive management team) 내 양성평등을 달성한 기업은 29%이었다.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초자재(basic materials), 정보통신(telecom), 소비재 분야가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과 이행을 따로 분리해서 보면 기초자재, 소비재, 정보통신 분야 순으로 계획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이행부문에서는 정보통신, 기초자재, 소비재 분야 순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평균 점수가 낮은 산업군은 보건의료(health care), 고객서비스(consumer services), 금융업(financials)이었다. CSR 활동계획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순은 고객서비스, 보건의료, 금융업이었으며 CSR 활동이행 부문은 소비재, 금융업, 보건의료 순으로 점수가 낮았다. 산업별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직접 가할 수 있는 산업에서 CSR 활동에 더 신경을 쓰고 정보공개에 힘쓰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편 연구진은 기업들이 본인들의 CSR 활동 중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조사 대상 기업 중 87%가 분명한 중점 분야를 두고 있었으며 그중 72%는 시간과 범위 면에서 측정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었다. CSR과 지속가능 분야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고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다수였다. 76%의 기업은 보고서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명시하고 있었으며 55%의 기업은 실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춰 CSR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측정된 CSR 활동계획과 CSR 활동이행 점수를 기반으로 네 가지의 다른 분류를 만들고 기업들의 CSR 활동을 평가했다. 설정한 분류는 계획과 실행 모두 우수한 기업(talking walkers), 계획과 실행 모두 저조한 기업(silent low-performers), 실행에 비해 계획이 우수한 기업(talking low-performers), 계획에 비해 실행이 우수한 기업(silent walkers)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활동을 평가 및 분류해본 결과 전체 95개 기업 중 51개 기업은 계획과 실행 모두 우수한 기업, 30개 기업은 계획과 실행 모두 저조한 기업, 8개 기업은 실행에 비해 계획이 우수한 기업, 6개 기업은 계획에 비해 실행이 우수한 기업에 속했다(그림 1 참조).



## ■ 맺음말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전 세계 곳곳의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민간영역, 특히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Kramer et al., 2019).<sup>5)</sup> 오래전부터 스웨덴의 기업들은 코포라티즘으로 대표되는 이해관계자 모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오고 있다(Strand & Freeman, 2015).<sup>6)</sup> 지속가능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높아지며 기업을 향한 다양한 사회적 압력이 전보다 훨씬 강해진 상황에서 스웨덴 기업들은 CSR 활동에 더욱 분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정부를 비롯하여 학계에서도 이를 독려하고 있는데, 특히 이 글에서는 스톡홀름 경제대학에서 2년 주기로 스웨덴 대기업을의 CSR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는 스웨덴 대기업을이 CSR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확인하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고 강점 및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점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조사 대상인 대기업들과 경제인들의 관심을 끌어들였다. 우리나라에도 한국 CSR 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상장 대기업을의 CSR 활동을 측정하는 ‘대한민국 100대 상장기업 CSR 지수’가 존재한다. 이 지수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ISO26000을 참조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지만 활동 성과만을 주로 측정하여 대상 기업들이 CSR 활동에 대한 어떠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 지점에서 계획과 실행 모두를 측정하는 이 보고서가 교훈을 제공한다. CSR 활동의 계획과 목표를 측정하는 CSR 활동계획지표는 성과 측정 기준인 CSR 활동이행지표보다 중요도가 낮다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발표하는 세부적인 CSR 활동 계획, 목표는 다른 기업의 전략 및 방향에도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지표이다(MISUM, 2019). 또한 CSR 활동계획지표를 통해 기업들이 해당 분야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통합적인 CSR 활동 측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KLI**

5) Kramer, M.R., R. Agarwal & A. Srinivas(2019), “Business as Usual Will Not Save the Planet,” *Harvard Business Review*, June 2019.

6) Strand, R. & R.E. Freeman(2015), “Scandinavian Cooperative Advantage: The Theory and Practice of Stakeholder Engagement in Scandinavia,”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7, pp.65 – 85.